

## 學位制度的 發展過程

鄭 宇 鉉  
(高麗大 教育學科)

### 1. 머리말

學位란 大學에서 소정의 教育課程을 마치고 기타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자 또는 교육적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學問的 成就의 한 표시를 말한다. 학위는 法的으로 인정된 高等教育機關이 그 기관의 명예를 걸고 수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위는 學問世界에서의 名譽의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專門領域에서 一家見이 있는 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大學과 學位는 相互聯關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大學 水準의 학교이면서 학위를 주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碩士만, 또 어떤 곳은 碩士와 博士를 수여할 수 있되 각 학과별로 인정된 곳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이 大學의 養成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데서 大學의 學問的 水準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학위는 特定領域에서의 專門的 能力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여되기 때문에 業績社會를 指向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커다란 威信을 인정받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학위 수여의 과정에서 內實이 갖추어지지 못하거나 公正性이 결여될 때 학위 수여 大學은 물론 학위 자체에 대한 相對的 價値도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學位制度가 적용되고 특히 上位學位가 수여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부터이다. 이와 같이 日淺한 歷史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위 제도는 나름으로의 土着을 기하고 있으며, 학위 수여의 數에 있어서도 比率로 보아 외국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학위 제도가 外的으로 形式이 갖추어졌다면 이제부터는 內的 整備에 힘쓸 때가 왔다고 본다.

학위 제도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定着을 위하여 學位制度의 發展過程을 살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일로 생각된다.

### 2. 學位制度의 發達

現代의 大學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2개의 커다란 主流를 찾게 된다. 하나는 Bologna 大學, 다른 하나는 Paris 大學이다. 이 두 大學은 中世의 비슷한 시기에 생겼지만 그 特性에 있어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Bologna가 學生組合이 강한 대학이라면 Paris는 教授組合이 강하다. Bologna가 法學 中心의 教育을 했다면 Paris는 神學과 教養 中心의 教育을 실시했다.

교수 呼稱에 있어서도 두 大學이 서로 달랐는데 Bologna 大學이 Doctor, Professor 또는 Dominus의 순으로 사용했다면, Paris 大學에서는

Magister(master), Professor, 그리고 Doctor 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學位의名稱인 Doctor 또는 Master 는 따라서 가르치는 자, 教授라는 뜻으로부터 발달되었다. 이와 같은 語源은 東洋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太學에서 가르치던 사람을 太學博士라 불렀고, 성균관에서 가르치는 教授職의 一名으로 '博士' 칭호가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日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람의 호칭을 教授 또는 博士라 하였다.

西歐에서는 이와 같은 호칭이 계속되었는데, 15세기 英國에서는 法學 등을 가르치는 사람을 Doctor, 教養을 가르치는 사람(기타 科目 포함) Master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각 大學에서는 Master 와 Doctor 를 큰 차이 없이 부른 것 같다. 예컨대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Doctor 라는 칭호를 사용한 데 반하여 文科의 여러 부문에서는 오히려 수준이 낮다고 인정되는 Master 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졸업장에 'Doctor of Philosophy 겸 Magister of Arts' 로 호칭하는 경우도 보인다.

碩士와 博士가 教授의 칭호에서 유래되었다면 學士의 칭호는 다소 격이 낮은 호칭에서부터 시작된다. 學士라는 말은 Baccalarius 라는 어휘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은 '領主의 家臣으로서 아직 封土를 받지 못한 騎士, 또는 자기 경지를 갖지 못하고 主人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下人' 을 뜻하였다고 한다. 中世에는 教授가 教育하는데 助手를 많이 사용하였다. 바로 이러한 助手의 位置에 있다는 뜻으로 學士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당시 學校에는 修學上 3가지 종류의 구분이 있었다. 첫째는 배우는 학생으로 Scholarius 라 하였고, 둘째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Baccalarius 라 하였으며, 세째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Magister 또는 Doctor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Baccalarius 가 된다는 것은 見習教授가 된다는 것과 같았으므로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 우선 일정한 기간의 수업 연한을 마친 후에 responsio 라 불리는 예비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수개월 후에 學士試驗(Examom Baccalariandorum)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상징으로서 學士를 위한 외투(Cappa)를 입고 선배의 옆자리에 앉게 된다. 대체로 19~20세 정도가 되면 Baccalarius 가 될 수 있었다.

中世의 大學은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하나는 University 이고 또 하나는 Studium Generale 이다. 前者가 학생이나 교수가 모여 있는 集團, 團體 또는 組合이라는 뜻이 강하다면 後者는 그러한 집단이 存在한 場所 또는 共同學習場을 가리킨다. 물론 法律的인 용어이기보다는 日常的인 용어에 속하는데 모든 地方에서 學生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 강하다.

12~13세기경 구라파에는 이름 있는 3개의 代表的 Studium Generale 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神學과 教養 中心의 Paris Studium, 法學 中心의 Bologna Studium, 그리고 醫學 中心의 Salerno Studium 이다(이 大學은 전통이 끊어졌다). 당시 이들 3개 Studium 중의 하나에서 가르치고, 동시에 그 教授組合에 가입된 사람은 기타 다른 Studium 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와 반대로 위의 세 Studium 이외의 Studium 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위의 3개의 소위 명성 있는 Studium 에서 가르치길 원하면 따로 새로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Studium Generale 이라는 말은 "이 학교가 인정하는 教授資格을 갖는다" 는 보편적 적용성의 뜻이 붙게 되었다.

13세기에 이르러 Bologna 와 Paris 이외의 대학에서도 서로 Studium Generale 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敎皇廳 안에 Studium Generale 을 신설하고 여기에서 教授資格을 인정받은 자는 새로운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다른 여러 大學에서도 자유로이 가르칠 수 있다는 승이 公布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敎皇과 皇帝는 그들의 권리하에서 '萬國教授資格(ius ubique docendi)' 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위로 얻어진 만국 교수 자격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즉 아무리 만국 교수 자격이라 해도 新生の 大學에서 얻은 教授資格(Doctorate)은 좀더 전통 있는 大學 또한 서로 권위가 있다고 자부하는 大學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예컨대 Paris 大學에서는 신생 대학의 하나인 Oxford 大學에서의 Doctorate 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반대로 Oxford 大學에서도 Paris 大學에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Studium Generale 의 졸업에 수반된 교수 자격으로서의 權利는 실제적인 것에서 점차 명예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새로운 Doctor 가 된다는 것은 大學을 마치고 資格證으로서 學位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Doctor 의 組合(guild)에 가입하여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教授로서의 여러 가지 特權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Paris 大學에서는 이러한 가입 과정을 inceptio 라고 불렀는데 이는 教授 면허자의 正式 취임식임과 동시에 同職人에 의한 新入者 承認式이기도 하였다. 즉 inceptio 가 있음으로 완전한 교수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加入式에서는 큰 잔치가 치러졌는데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향연 (Pandium Aristoteles)’ 이라 부르고 이 때에는 아주 많은 경비를 써야만 했다.

서구의 中世大學 發達을 살펴볼 때 학위는 관습적 사용에서 시작되어 점차 제도화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① 學位는 가르치는 자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 ② 초기의 學位는 學士學位와 碩士 및 博士學位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위계성에 있어서 同列이었으나 점차 박사학위가 우위로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學位의 區分도 분명하지 않았다.
- ③ 學位는 大學의 특별 권한의 一部로 생각하였다.
- ④ 學位制度의 發達에서 보건데 두 主流는 神學과 教養을 중심으로 하는 Paris 大學과 法學을 중심으로 하는 Bologna 大學으로 볼 수 있다.
- ⑤ 學士學位의 개념은 教授 후보생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⑥ 學位는 처음에는 教授資格과 관련이 있었으나 점차 명예와 관련을 갖게 되었다.

### 3. 우리나라에 미친 學位制度

#### 1) 日本의 學位制度

우리나라의 學位制度에 영향을 미친 나라로 日本의 教育을 들 수 있다.

日本의 大學에서 학위를 주기 시작한 것은 1879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東京大學 졸업자에게 수여된 學士學位는 특별 시험 등 심사 과정이 전혀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졸업 자격증과 같은 것이었다.

最高의 학위인 박사학위가 설치된 것은 1887년의 學位令에 의해서인데 이 때에 두 종류의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는 ‘博士’學位이고 또 하나는 ‘大博士’學位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사학위만 사용되고 대박사학위는 하나도 수여된 건수 없이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 때에 博士로는 法學博士, 醫學博士, 工學博士, 文學博士, 理學博士의 5개 종류를 두었다. 박사 취득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大學에 正規學生으로 등록하여 소정의 시험을 필한 자에게 수여하는 과정 박사이고 또 하나는 大學 卒業 이상의 學力 소지자로서 帝國大學評議會에 추천되어 人的 또는 論文의 심사를 거친 후 학위를 얻게 되는 비과정 박사이다. 그런데 이 비과정 박사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학문적 업적을 나타낼 만한 論文 한 편을 文部大臣에게 제출하고 文部大臣은 다시 帝國大學評議會에 이를 회부하여 심사를 구하게 되는 論文博士와 또 하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帝國大學評議會에 회부하여 여기서 2/3 이상의 찬동을 얻어 수여되는 추천 박사가 있었다. 당시에는 추천 박사가 수여자의 대종을 이루었다. 이 때의 개념으로 博士란 學問的인 엘리트라는 인식보다는 文部大臣이 수여하는 일종의 위계이고 명예에 가까운 것이었다. 1897년까지 박사학위 수여자의 形態別 수를 보면 추천 박사 82%, 논문 박사 14%, 과정 박사 3%, 기타 1%로 나타나 있어 추천 박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점을 인식하고 1898년에 새로운 학위령이 公布되었다. 이에 따르면 박사학위의 종류를 종래의 5종에다 藥學博士, 農學博士,

林學博士, 獸醫學博士의 4 종류를 추가한 9종으로 만들었고 학위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정 박사, 논문 박사 외에 추천 박사를 새로이 만들고 이 추천 박사도 博士會 추천에 의한 것과 총장의 추천에 의한 것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새로운學位令이公布된 후 수여된 90명의 박사학위를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과정 박사가 3명, 논문 박사가 7명인데 반하여 博士會 추천 박사 51명, 총장 추천 박사 29명으로 추천 박사가 총 인원의 80%를 점하고 있음을 본다. 즉 당시 日本에서는 學問보다는 명예에 의한 학위 수여가 월등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 후 日本에서는 점차 독자적인 學問的 정비도 일어나고 새로운 서구의 교육 제도에도 익숙해지면서 명예 중심의 학위를 學問 중심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大學마다 자체적 학위 수여의 권한을 갖기를 원하게 되었다.

결국 1920년에 제 3차의學位令이公布되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의 큰 변화를 보게 된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지금까지 文部大臣에게 주어지던 학위 수여권이 大學으로 이양되었다. 둘째, 학위 수여의 기준이 추천이 아니라 論文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셋째, 학위의 종류를 大學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文部大臣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이 經濟學博士, 商學博士, 政治學博士의 3개 종류가 첨가되어 日本의 학위수는 12개 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박사학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즉 박사란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完成의 경지를 보이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생의 연구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여겼고 博士論文은 출판되어서公表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박사학위는 論文에 의한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추천 박사는 점차 없어지고 論文博士가 대중을 이루게 되었다. 종류별로 보면 醫學博士, 理學博士, 工學博士, 農學博士, 文學博士, 法學博士, 經濟學博士, 藥學博士, 林學博士의 순으로 학위가 수여되었다. 그런데 수여자 수를 보면 의학 박사가 전체의 86%를 점하여 이

때부터 의학박사는 他分野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띠게 되고 이 때부터 전문적 박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日本이 한국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1905년부터라고 보고 또 日帝時代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사학위가 수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식된 모든 학위의 개념이나 취득 과정은 거의 日本의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日本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단선형 學位制를 포방하는 새로운 학제를 받아들였고學位制度에 있어서도 이에 준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修士(碩士)學位<sup>1)</sup>가 생겨났으며 大學院 在學 4년 이상자로 論文을 제출하게 하도록 했고 同等學力을 가지고 논문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학위 제도가 받아들여짐으로써 박사학위의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박사란 “學力이 公認된 자로서 學者의 명예를 표징”하는 뜻으로 해석되었는데 새로운 制度下에서의 박사란 “독창적 연구에 의해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학술 수준을 높이며 文化의 창달에 기여하는 자로서 전공 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지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日本의 학위 제도가 西歐의 것을 포방하였으나 그 중 많은 것을 獨逸의 大學制度에서 받아들였고 자격에 있어서도 課程보다는 論文에 초점을 두었다. 또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專攻領域을 표시해 왔다는 데서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課程博士와는 여러 면에서 相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日本이 우리에게 일찍부터 소개하였던 학위 제도가 그 근본은 西歐이고, 제도의 확립에 있어서는 日本 자체의 편의에 맞도록 改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美國의學位制度

美國의 敎育은 여러 면에서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특성을 지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新生の 나라이고 그들이 영향을 받은 나라도 여러 나라이기에 초기의 발달에서 통일성 있는 유형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1636년에 설립된 Har-

vard 大學은 英國의 Cambridge 大學에서 영향 받은 것이고 Yale 大學은 독일 것에서의 영향이 컸으며 기타 주립 大學은 미국의 독자적 특성과 맞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美國에서는 처음 英國의 영향을 받아 學士學位와 碩士學位(가)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석사학위는 연한만을 채워도 自動的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학위였다. 기록에 따르면 첫 박사는 명예박사로서 1692년 Harvard 대학(설립 후 50년)에서 수여되었다. 또한 Yale 大學에서는 1861년에 처음으로 독일식의 Ph.D. 를 냈다고 한다. 명예박사는 당시 사회적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는 종교가, 교육자 및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수여되었다. 그리고 가끔 의과대학 출신은 아니면서도 실적 있다고 인정되는 의사에게 醫學博士(M.D.)의 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學士, 碩士, 博士의 모든 수준에서 명예 학위를 수여하였다. 예컨대 B. Franklin은 1753년에 Harvard 대학과 Yale 대학에서 각각 명예 석사학위를 수여받았고, 1759년과 1762년에는 St. Andrew 대학(L.L.D.)과 Oxford 대학(D.C.L.)에서 각각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명예학위로서의 學士, 碩士學位는 점차 없어지고 오직 博士學位만 남게 되었다. Yale 大學에서 哲學博士인 Ph.D. 가 수여된 후, 이 Ph.D. 는 점차 명예 박사의 호칭으로 愛用되게 되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1870년에는 學問을 통해 얻은 Ph.D. 보다 명예로 얻은 Ph.D. 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1867년 Johns Hopkins 大學의 창설자인 D.C. Gilman 이라는 사람이 앞으로의 명예 박사는 哲學博士라는 칭호를 쓰지 말고 特定分野에서의 공적이 인정된다는 분야 표시의 박사학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국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이 후부터는 명예 박사학위에 공적을 나타내는 분야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예컨대 명예 문학박사는 Litt.D., 명예 법학박사는 L.L.D., 명예 음악박사는 Mus.D., 명예 신학박사는 D.D., 명예 과학박사는 Sc.D. 등이다.

○ 현재 美國에서는 이 명예 박사 수여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업적 없이 금전으로 학위를 거래하는 수도 있고 또 공인되

지 않은 기관에서 사기성을 띤 학위 난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점차 명예 박사보다 學問을 통한 박사학위가 그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美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위의 명칭으로는 進學士, 學士, 碩士 및 博士의 4종류가 있다. 준학사는 2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학사는 대학 졸업자에게, 석사는 대학원 과정 이수자 중에서 1단계로 수여하며 마지막으로 박사는 학위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것으로 수여하고 있다.

학사학위는 1642년 Harvard 大學에서 처음 주기 시작하였으며 1862년 주립 大學이 생긴 후 더욱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 전문직 학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 종류도 늘어나서 현재는 B.A.(文學士) 100여 종류 그리고 B.S.(理學士) 430여 종류를 헤아리게 되었다. 석사학위는 모든 학위 중 가장 統一性이 없고 또 전통성이 없는 학위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석사학위는 남북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초기 英國制度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등록금을 내고 일정한 기간 동안 상주하며 공부하였다는 증서로 주던 것이었는데 1870년 이후부터 外國語와 論文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다시 외국어와 논문의 부과 없이 과정 이수만으로 학위를 주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박사과정을 밟으려던 필히 석사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一律的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결국 학생(Terminal Student)의 뜻이 있을 때는 석사학위만을 수여하는데 이 학위를 받게 되면 박사과정으로서의 진학이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박사학위는 비교적 統一性이 있다. 즉 학위를 얻기 위한 교육 과정, 학위의 명칭, 학위 수여에 사용하는 복장, 후드의 색까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박사학위과정은 비교적 통일이 이루어져 있다. 박사학위로는 대체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學問 중심의 학위이고 또 하나는 專門職 중심의 학위이다. 學問中心 또는 研究中心學位는 Ph.D.(Doctor of Philosophy)로 표기되고 있는데, 수학을 전공하였거나 농학을 전공하였거나 문학을 전공하였거나를 막론하고 학문 중심 학위이면 Ph.D. 가 수여된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직 중심

학위는 각 전공의 명칭이 붙게 되는데 經營學이면 D.B.A.(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教育學이면 Ed.D.(Doctor of Education), 도서관학이면 D.L.S.(Doctor of Library Science) 등으로 표기된다. 다시 말하면 같은 教育學이라 해도 과정의 성격에 따라 Ph.D. 학위와 Ed.D. 학위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학문 학위와 전문적 학위의 구분은 점차 그 한계가 모호해지고 있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Ph.D.는 學問 또는 研究中心學位(research degree)로 속하는데 굳이 표현한다면 "the badge of the proved investigator"라는 뜻이 된다.

Ph.D. 학위의 요구 조건으로 일반화된 것을 보면 ① 大學 졸업 후 적어도 3년 이상의 학과목 이수와 개인 연구를 하되 그 중 1년 이상을 상주 학생으로 공부에 전념한다 ② 1~2개 이상의 외국어에 숙달하여야 한다 ③ 종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④ 論文을 작성하고 이를 원만히 방어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 중 外國語의 선택 범위, 부전공의 이수, 종합 시험의 종류와 시험 회수, 대학원 입학과 학위 준비까지의 연한 제한 등은 大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 연구 학위 과정과 전문적 학위 과정의 차이로는 ① 外國語 요구의 완화 ② 學科目 이수에 있어서 基本科目보다는 전공 과목 집중 ③ 연구 테마에 있어서 실용성 등을 내세울 수는 있으나 획일적인 구분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인 경향에서 보면 전문적 학위 소지자는 실무에서 그리고 연구 중심 학위는 大學講義와 研究職에 종사하는 것 같다.

#### 4. 우리나라의 學位制度

우리나라의 學位가 언제부터 수여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안을 내리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의 教育을 살펴 보면 고구려, 신라 시대부터 官學으로서 國學이라는 교육 기관이 있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명칭이 太學監, 成均館으로 바뀌어지면서 朝鮮朝까지 계속되었다.

이 때의 教育目的은 官人으로 쓰일 人材養成

에 두었는데 항상 과거 응시와 연관을 가졌었다. 기록에 보면 "科擧 때마다 太學長은 先期하여 朋倫堂에 모여 上下齊의 名錄을 조사하여 品行에 흠이 없고 學問에 뜻이 있는 자를 골라 과거에 응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의 학교는 학문 성취의 단계를 표시하는 졸업 또는 하나의 학문적 자격 수준을 나타내는 학위가 없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 학생 중에서 필요로 하는 자를 官人으로 발탁 또는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계속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가르치는 교수의 任命에 있어서도 "文官으로서 學行이 飾表될 만한 자와 經學에 능통한 자를 各別하여 선발케 함으로써" 그 자격 기준이 성균관 등 교육 기관에서의 수학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었던 것 같다.

188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는 서구의 新文物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新學制가 들어왔다. 알려진 대학 수준의 처음 학교로는 세브란스醫學校를 꼽을 수 있다. 1886년 3월 재중원 병원 부설의 학부로서 발족을 하고 정규 학교로는 1899년에 인가를 얻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08년 10년 과정을 마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의 졸업자에게는 학위의 표기가 없는 '졸업증서'만이 수여되었던 것 같다. 당시의 세브란스 學則에 보면 학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졸업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고 명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때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학위보다는 자격증 수여에 보다 관심이 컸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 교수들의 이력 표시를 보면 M. D. 또는 Ph.D.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학위에 전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日帝下에서는 일본식 교육이 그 중심을 이루었기에 모든 학교 제도나 실천이 日本의 것과 동일하였다. 학위의 명칭 역시 일본에서 사용하던 것이 그대로 準用되었다. 다만 박사라는 호칭이 우리나라나 日本 등의 전통적 學校 기관에서 教授의 이름으로 쓰이던 것과 같다는 데에서 서구의 Doctor가 교수의 이름에서 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명칭으로 받아들여진다.

日帝下에서 正規大學으로는 1923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역시 상급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大學에서 첫번째 박사학위 수여는 1948년 서울大에서 MacArthur 에게 준 명예법학박사를 들 수 있다. 또 서울大에서의 論文博士 1호는 1952년에 수여되었고 과정 박사 1호는 1962년에 수여되었다.

1949년 우리나라에 새로운 教育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大學院教育도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大學에서 명예 박사학위 수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규 박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日本에서 많이 통용되던 論文博士가 그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60년대부터 점차 과정 박사로, 學位取得의 방법이 변하게 되었고 '70년대까지는 두 방식이 병용되었다.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여러 가지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시대이다. 즉 ①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폭적인 學制改革이 추진되었다 ② 학위과정에 있어서도 논문박사제도가 중지되고 과정 박사로 統一토록 하였다 ③ 經營大學院, 教育大學院 등 특수 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다 ④ '70년을 전후하여 순수 교육 기관이 아닌 科學院과 精神文化院과 같은 곳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⑤ 서울大에서는 一般大學院과 특수 전문대학원을 統合시킴으로써 학위 과정의 一元化를 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學位制度는 점차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 교육으로 그 틀을 잡아간 모습이 나타나 보이고 있다.

석사과정은 대학 졸업 후 2년 과정으로 하되 論文을 과하도록 하였고 박사 과정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입학 자격을 주되 3년 이상(60학점 이상)의 學科目 이수, 2개의 外國語 구사 능력, 종합 시험에의 합격 그리고 論文 심사를 거쳐 학위가 수여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8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77개의 교육 기관에서 一般大學院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文教部에서 인가된 편제 정원수는 석사과정 30,744명, 박사과정 11,072명이며 특수 전문대학원 126개 大學에 편제 정원수 28,325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52년부터 '8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박사학위 수여자 수는 13,30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學位制度는 몇 단계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日帝時代에 소개받았던 複線型學制와 이에 준한 학위 제도 그리고 해방 후 우리가 받아들였던 單線型學制와 이에 준한 학위 제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나름의 제도가 정립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의 과정에서 누적된 여러 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학위 제도는 아직도 조정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論文博士와 課程博士의 문제, 學問中心學位와 專門中心學位 사이의 諸 結差와 名稱의 문제, 碩士課程과 博士課程의 연계성 문제, 學位와 관련된 諸服裝의 검토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에서 學問 연마를 위한 正當的 發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야 할 것이며, 改善을 위한 보다 具體的인 代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